

국내 최대 '광주에이스페어'...하이브 등 400개 기업 참가

26~29일 DJ센터...세계전시연맹·전시산업협 인증 유일 콘텐츠 전시회 세계 30개국 바이어 190여명 참여...수출 상담·투자 유치 등 성과 기대

하이브 등 국내외 유명 콘텐츠 기업 400여개사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4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2024 광주에이스페어'는 콘텐츠 관련 전시행사 중 유일하게 세계전시연맹(UFI), 한국전시산업협회의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전시회다.

'IP의 변주와 다양한 콘텐츠의 탄생(Seeding IP, Digging Conten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세계 30개국 400개 기업(국내 359, 해외 41)이 503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특히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HYBE)도 참가해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바이투게더 등 소속 K팝 아티스트의 콘서트,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국내 대표 방송기업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J ENM도 대표 콘텐츠를 총동원한다.

해외기업으로는 대만 타이베이멀티미디어제작협회(TMPA), 인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기술위원회(MESC), TVAGA, 홍콩의 치어스미디어컴퍼니(Cheers Media Company), 브라질 시리엘라프록션(Seriella Productions) 등 세계적인 방송·엔터테인먼트·캐릭터 기업들이 참가해 바이어들에게 콘텐츠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광주기업으로는 디자인숨, 스튜디오버튼, 핑고엔터테인먼트, 아이스크림스튜디오 등 38개사가

캐릭터·애니메이션 부스를 운영하며,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템과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가상화 기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선보인다. 또 올해 전시회에는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세계 30여개국 해외바이어 19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CCTV 애니메이션(Animation), 망고 티브이(Mango TV), 텐센트 비디오(Tencent Video), 브라질 TV방송사 글로벌(Globo) 인터내셔널, 멕시코 텔레비전 메트로폴리타나(Metropolitana-Canal 22) 등 아시아권과 중남미권의 바이어 16개사가 참여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비즈니스 수출상담회'(26~27일), '2024 광주 콘텐츠 투자유치 IR(26~27일)', '한중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교류회(27일)', 투자진흥지구 팸투어(25일)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관광공사와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에는 26개국 87개사(국내 63개사, 해외 24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에이스페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올해 광주에이스페어는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기관 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에이스페어가 광주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 축제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3일 오후 나주 한전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철 한전 사장 등 운영위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전남도·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힘 모은다

전국 6개 융복합단지 중 첫 출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협약도

글로벌 에너지산업 선도를 위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 전남도, 한국전력공사는 23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있는 전국 6개 단지 중 최초로.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철 한전사장을 비롯한 학계·연구계, 에너지 관련 기업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는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한전 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에너지산업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풍력산업 등의 중점산업 육성, 산·학·연·관 협력사항, 정부지원 건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는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날 선포식과 함께 융복합단지 생태계 활성화 전략 발표, 한국벤처투자 등 6개 기술주회사의 에너지신사업 투자협력협약 체결, 에너지기금 지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출범식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활성화와 전력망 조기 확충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8월 정부의 계통망 포화 해소 대책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의 난관이 예상되지만, 분산에너지 자원 특화 등 위기에 봉착한 재생에너지산업을 기회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 '전문성 논란' 검증

인사청문회...국회의원 시절 농협법 특혜 의혹 등 쟁점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국회의원 시절 농협법 특혜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병환(민주·북구1) 시의원은 23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로 의정활동과 관련한 경력"이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했지만 의정 활동은 국회 전반에 걸쳐 하는 것이고 전문가 소통과 정보 수집을 해왔다"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융합해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고 혁신하는 역할도 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날 일부 시의원이 지적한 국회의원 시절 농협법 특혜 입법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회장이었던 이성희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당시 회장의 연임 자격 부여 부분에만 논란이었다"면서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상임위원 다수가 찬성하고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장 이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직무수행계획서 발표와 의원 질의답변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등 광주도시공사의 5대 경영전략과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미래 사업 방향과 재정 건전성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탄소중립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윤을 창출하겠다"면서 "특히 사업 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등도 검토하겠다"며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나 기자 khn@

전남도, 전북·승어 등 고급 어묵 시장 공략

목포에 가공공장 설립·어묵 신메뉴 개발 등 추진

전남도가 최근 성장 추세인 고급 어묵 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과 승어를 활용한 어묵 신메뉴 개발과 목포어묵 가공공장 설립 등 어묵산업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어묵 시장은 2023년 6227억원 규모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약 73%가 부산과 경기도에 밀집한 반면, 전남은 2개 기업 약 0.3%를 차지해 지속적인 사업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전북, 승어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목포 대양산단에 총 100억원을 들여 어묵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지난 7월 착공했으며 올해 하

반기에는 입주기업을 모집·운영할 예정이다. 3개 입주기업에서 1일 최대 6t 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어묵 가공 공정과 어묵 제조 체형 등 관광까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어묵의 경우 지난 4월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실시해 긍정적 효과를 얻은 이후 관련 기업에서 광주·전남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타 지역 학교에도 급식 공급을 위해 협의 중이다.

승어 어묵은 진도 해역의 승어와 전북, 툷, 대파 등을 활용해 진도 신기 어촌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력해 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개발해 지난 추석 명절 세트 상품을 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